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경관계획 지표의 타당성 검증

유연호* · 나정화** · 구지나* · 권오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I. 연구배경 및 목적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90년대까지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무질서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초래해 매력 없는 도시경관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체계가 개편되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경관관련 법·제도 중 경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각 위계에 따른 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경관계획 대부분이 학문적 이론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였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경관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떨어져 참고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관계획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경관계획을 위한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의 대부분은 경관이 다양한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형에 주안점을 두고 이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하여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경관계획지표를 선정하고, 법·제도적인 요소들과 문헌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경관계획은 광역적 국토공간에 대해 경관자원의 보호, 보전, 활용,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경관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계획도구이다(Hersperger, 2006; Osamu, 1999; 한국조경학회, 1996). 이러한 측면에서 나정화(2005)는 지생태적, 생물생태적, 인간심리·행태적 측면에서 경관계획이 계획방향에 무게 중심을 두고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경관협회의(2008)는 경관계획의 작성에 도시환경이 가지는 다양한 질적 측면들인 심미적, 문화적, 생태·환경적, 기능적 측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지표 유형들을 기후, 토양, 지형 등을 포함하는 지생태 지표와 생물생태요소를 포함한 생태적 지표, 시각적으로 가치가 높은 경관요소인 스카이라인, 조망축, 건축물의 외형 등을 포함한 미시각적 지표로 구분하였다. 또한 인간의 이용과 휴양적 목표에 기초한 이용·휴양적 지표를 추가하여 총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표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경관계획지표 선정은 기존에 이미 연구된바 있는 국내·외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국내문헌 분석은 지난 10년간 한국조경학회지, 도시계획학회지, 대한건축학회지 등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과 지자체의 경관조례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실제 반영하고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평가지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평가항목들을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행하여 각 항목들을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으로 표시하였다. 각 항목별 현황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각 항목들을 순위화 시켰다. 특히 가중치를 주기위하여 전문가 설문분석을 통한 계층적 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국내외의 연구문헌과 법·제도를 종합하여 3가지 유형별 지표항목을 선정한 뒤, 지표의 재설정 과정을 거쳐 수정·정리하면

표 1. 지표 유형별 정리

지표 유형	지표 항목
생태적 지표	단면 경사, 표고, 자연 지형, 수질, 수량, 식생, 대지, 우점식생, 식생형태, 녹음, 표토보호, 야생동식물이동통로, 생물상, 토양, 강수량, 기후, 녹지율, 입상도, 녹지축, 녹지자연도, 비오톱, 복원성
미시각적 지표	조망권, 조망점, 조망축, 스카이라인, 건축물(높이, 색채, 배치, 규모, 형태), 가로수, 건축선 후퇴, 랜드마크, 가로시설물·육외광고물(크기, 형태, 색채, 위치), 시각거리, 교량, 하도
이용·휴양적 지표	토지이용, 선호도, 장소성, 정체성, 접근성, 혼잡도, 인구밀도, 개방성, 특화장소, 특화거리, 이용성, 헤메로비, 보행녹지네트워크, 공원녹지확보율, 인지도, 만족도, 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참여프로그램

표 1과 같다.

경관계획을 위한 지표들의 선정에 있어서 물리적 표현이 용이하고 도시의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생태적 지표와 인간의 심리행태에 기초한 미시각적인 경관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휴양적 지표는 인지도, 만족도로 대변되는 어휘를 활용한 추상적인 지표들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의 경우 미시각적인 지표 활용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상세 지표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생태적 지표와 미시각적 지표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룬다.

경관계획을 위한 지표의 설정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경관의 특성상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특이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표 2. 지구단위계획상의 경관계획 주요내용

대상	경관계획의 주요내용
도로축 경관, 수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역사문화축 경관	경관조성계획 제시
지역 랜드마크	이미지 제공의 지표물 설치
건축물, 가로 및 공공공간	유형 및 형태, 색채, 로고, 문양
조망점	원경, 근경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
공원, 녹지	지역의 개성과 이미지 특성 부여
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구역 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 인식
간판	크기, 형태, 색채, 재질, 주변건물과 조화
대문, 담, 울타리	재료, 형태, 색채 등
역사적 가로, 상징가로	건축물 형태, 재료, 외벽높이, 의장, 지붕, 담장, 석재, 서터 등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관계획은 향후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타당성 있는 지표의 유형을 제시하고 지표항목을 결정하려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에 반영되는 지표를 확인하고 그 지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의 사용으로 통합적인 경관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지표의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지표별 개선방안과 이를 실 사례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특히 대상지의 개선도면의 도출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용수, 박찬용(2007) 도시근교 택지개발지역의 경관계획지표 적용방안. 농촌계획학회지 13(3): 51-60.
2. 나정화(2005) 경관생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을 통한 도입 가능성과 한계성. 한국조경학회지 33(4): 48-50.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6) 도시계획론. 보성각
4. 한국경관협회의(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보문당.
5. 한국조경학회(1996) 조경계획론. 문운당.
6. Hersperger, Anna M.(2006) Spatial adjacencies and interactions: Neighborhood mosaics for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7: 227-239.
7. Osamu, Sinohara(1999)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대우출판사.
8. <http://www.moleg.go.kr/>
9. <http://www.elis.go.kr/>